福音新聞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2014 년 감사절 메시지

죄인의 축복

로마서 3:23-24

장성준목사 (키타가미 벧엘전도소)

1.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축복이다.

교회에서 처음 '죄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죄인이라는 말은 큰 사건에 연루된 무거운 책임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됩니다. 설령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를 지적 받게 되면 흔쾌히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즉 세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처음 인간인 아담과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7).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과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그들의 모든 자손들 즉 지금의 우리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성별되어져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은 창조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중요한 약속을 그만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모든 고민과 고통은 바로 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의식이 자신만을 지키도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에게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늘 마음의 외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고민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는 인식은 '구원의 길' 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 진지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성찰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 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문제가 성경으로부터 왔으니 해답도 성경을 통해 찾아 보겠습니다.

2.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는 것은 축복이다.

죄로 인해 고통 받는 인간에게 성경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4).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모두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입니다. '구속' 이란, 죄인을 대신하여 몸소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은 것을 믿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의' 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 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니 무섭게 두려워지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혹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외롭게 만들며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안의 '죄' 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해결하여 진정한 행복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위로해 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더라도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해 주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학벌이나 경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선 예수님을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외로움이나 실망 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며,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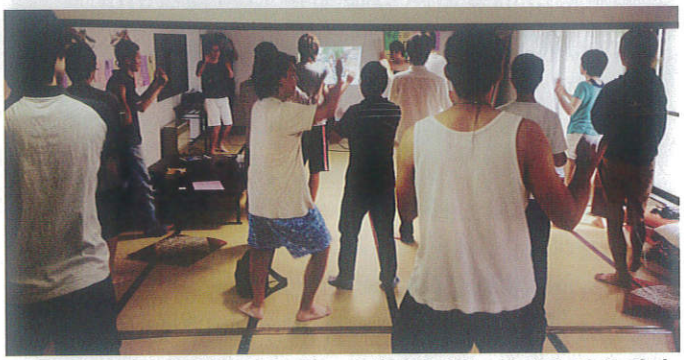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청년회 전국협의회>
제 65 회 하기수양회 개최

8월 13일(수)~16일(토), 나가노현(長野　白馬)에서 관동, 중부, 관서의 각 지방회에서 청년들이 모여 "제 65 회 하기수양회"가 개최되었다.

첫째 날 교류회에서는 처음 만나는 청년들이 많았지만, 금방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서 각각의 분단에서 더 깊은 교류를 가졌다. 이어서 전협대표가 주제 견해발표를 통하여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둘째 날에는 조영석목사(반석교회)가 "사회와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하였다. 저녁에는 8.15 예배를 통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 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삼일 째는 성경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반성할 점이 있는 수양회였지만, 참여한 많은 청년들은 함께 즐기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기뻐하였다. 또한 반석교회 조영석목사, 나가노교회 최화식목사, 쯔쿠바동경교회 허백기목사(신도위원장), 난코전도 소 김대현목사가 개회예배와 폐회예배 등을 포함한 많은 축복과 봉사와 협력을 해 주었다.

올해부터 새롭게 참가 한 청년들은 교류회와 주제 견해, 8.15 예배 등을 통한 각 프로그램 기획에 매우 만족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기도로 인하여 올해도 하기수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보고 : 청년회전국협의회)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
제 27 회 수양회 개최

10월 6일(월)~7일(화), 서부지방회 여성 연합회 주최로 "제 27 회 수양회" 가 코베(シーパル須磨)에서 양양일씨(마이너리티 연구회 대표)를 강사로 맞이하여 목사 5 명을 포함한 40 여 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최미에꼬부회장의 사회로 양영우목사가 "기쁨의 열매" (갈 5:22-23)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김제명 음악부장의 사회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며, 각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였다.

첫 번째 주제강연에서 양양일씨는 "은사로서의 Empowermen(湧活), (살아가는 힘)" 이라는 제목으로 소수자들의 입장과 계획을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둘째 날 아침 기도회는 이화순 선교부장이 간증을 한 후, 두 번째 주제강연에서 양양일씨는 "더 나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라는 강연을 통하여 "매일 집안 일과 육아와 직장 등에 쫓기고 있는 여성은 자신을 잃어 버리고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자신도 믿을 수 있다" 면서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엔파워먼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폐회예배는 이현지회장의 사회로 박두희목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출 4:1-4)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 수련회는 주제강연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알찬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 갔다.

(보고 : 유정혜서기)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ＹＭＣＡ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 時間営業。10 名様～ 200 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 名）も可能。
・スペースＹホール：200 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ＹＭＣＡ東京日本語学校【3 ヶ月～ 2 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　込	平　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 500	¥6, 000
ダブル	¥10, 500	¥9, 700
トリプル	¥13, 500	¥12, 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ＹＭＣＡ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 2-5-5　☎ 03-3233-0611
関西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관서지방회>
어린이 대회 / 연합 하기학교

< 어린이 대회 >

6 월 8 일 (주일) 오사카교회에서는 어린이 52 명과 성인 36 명이 참가하여 "2014 년 관서지방회 어린이 대회" 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대회 장소를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오사카교회 3 층 강당에서 거행되었으므로 둥글게 의자를 놓고 중간을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친숙한 분위기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주제곡은 무슨 일이 생겨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각오와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돈토꼬" (どんとこ) 를 통하여 모두 즐겁게 노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성삼목사 (교육부장) 의 재미있는 설교로 친밀감을 쌓았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이어서 주사위를 이용한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를 추적해 보는 게임은 공부가 아닌 즐거운 놀이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게 되었는데, 참가한 아이들은 물론이며 어른들도 매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어린이 대회 마무리로 주었던 시계 선물도 학생들은 매우 기쁘게 하였다. 우리의 믿음과 봉사와 기도를 크게 축복 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

< 연합 하기학교 >

7 월 27 일부터 28 일까지 이코마 산록공원 (生駒山麓公園) 에서 "기쁨 ! 땅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후세교회, 오사카제일교회, 나니와교회, 오사카니시나리 교회에서 31 명이 참여하여 "2014 년도 하기학교" 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신용섭목사 (나니와교회 부목사) 가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저녁 식사는 바베큐를 한 후에 시미즈사모가 바울의 세계 선교 지도를 이용하여 '주사위 게임' 과 '촛불 의식' 을 하였다.

둘째 날은 아침에 라디오 체조를 한 후 송남현목사가 "이 산에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점심 후에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물총으로 놀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폐회예배는 천봉조목사 (오사카니시나리교회 부목사) 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내년에도 즐겁게 성경을 배우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기도로 함께 해 나가고 싶다.

(보고 : 천봉조)

<서남지방회>
모두 모이자 ! 2014 개최

7 월 21~22 일, 서남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는 공동 주최로 "모두 모이자 ! 2014" 는 제목으로 웅대한 아소산 (阿蘇山) 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이 풍부한 호텔 그린피아 미나미아소 (南阿蘇) 에서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양 교회가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며, 모든 교인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나누며 워크숍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참여하는 여름 성경학교이다.

이 집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큐슈교구에서 전신도대회 (全信徒大会) 를 실시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남지방회에서는 공동개최를 제안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2 년 가까이 준비를 거듭하여 결국에는 선교협약 30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최하게 되었다. 참가자는 211 명 (서남 지방회 67 명) 이었다.

개회예배는 교구 의장인 우메자키코지 (梅崎浩二) 목사, 폐회예배는 지방회장 김명균 목사가 담당하였다. 음악과 간증은 바이올리니스트 정찬우씨, 워크숍에서는 지방회와 교구에 속한 달란트가 풍부한 지도자들이 그리스어 성경연구, 교회 센류 (川柳), 어린이들과의 자연 속에서의 놀이, 연합 성가대, 핸드 벨, 앙상블 연주 등으로 다재다능하고 풍부한 발표들이 이틀 동안에 펼쳐졌다.

교류 바자에서는 서남지방회 여성 연합회가 한국 물산을 아마미 (奄美) 와 큐슈 각지의 명물과 각 교회의 수제 상품 등을 판매하였다. 또한 지방회에 속한 분이 본격적인 철도 모형과 디오라마 (ジオラマ) 를 전시하여 수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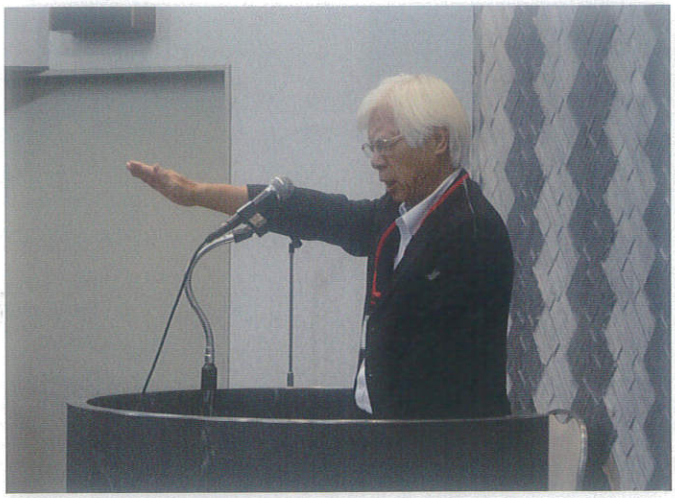
끝으로, 기도와 지원을 해 준 지방회와 교구 공동 실행위원회, 그리고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에 감사 드린다.

(보고 : 김성효)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기독교단> 선교협약 체결 30 주년 기념



9월 16일(화), 재일본 한국 YMCA에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 기독교 단과의 선교협약 체결 30주년 기념집회"가 거행되었다.

기념예배는 일본기독교단 부의장인 이토(伊藤瑞男)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총회장 조중래목사가 "산에 서라"(열왕기상 19:11~18)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인사와 더불어 전체 안내를 한 후에 프라하 일본인 교회 선교사인 손신일목사가 체코 복음 형제교단 대표를 소개하고 각각 인사하였다.

이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영철목사(부서기)와 쿠모시카리(雲然俊美, 서기) 목사가 양 교단에서의 참가자들을 소개하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부터는 교단의 나가사키(長崎哲夫, 총간사) 목사의 사회로 이근수목사(서기), 허백기목사(쯔쿠바동경교회), 하리타(張田眞, 역사 공동 연구위원회) 목사, 코바시(小橋孝一) 목사가 각각 발제 하였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통하여 선교협약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질적인 선교로 다가갔다.

폐회예배는 김성제목사(부총회장)의 사회로, 이시바시(石橋秀夫, 교단 의장) 목사가 "본래의 생명과 힘의 회복"(사도행전 2:37~38)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폐회했다.

앞으로도 선교협약의 정신과 역사를 살리면서 선교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보고 : 편집부)

<관서지방회> 여성연합회 창립 60 주년 기념

제 24 회 말씀과 찬양 축제 개최

9월 14일(주일), 오사카교회에서는 관서지방회 여성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 24 회 말씀과 찬양 축제"가 12 교회 여성회 회원 156명을 포함하여 269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예배당에는 넘칠 정도로 모인 교인들이 합심하여 은혜를 받았다.

제 1 부 예배는 전조묘선교부장의 사회로 김필순목사(지방회장)가 "인생을 잇는 찬양"(요 15:4)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회 회장의 인사와 심사 위원 5명의 소개가 있은 후에 각 교회의 찬양이 시작되었다. 참가한 모든 교회가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올해는 관서지방회 여성연합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24년째를 맞이하는 '페스티벌' 은 더욱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며, 말씀과 찬양의 일체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예배에서는 헌금 (154,070 엔) 이 있었으며, 페스티벌상은 히라노교회, 찬양상은 오사카북부교회, 말씀상은 오사카교회가 각각 수상하였다.

(보고 : 손하경부서기)

대강절을 기다리며 ..... **待降節 (11月30日~12月24日)**